

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 중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이홍규(동서대 국제학부)

- 목차 -

- I. ‘사회주의민주’ : ‘중국식 사회주의’의 공식 이데올로기
- II. 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 1. 팡닝의 ‘사회주의민주’ - 민족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체제 건설론
 - 2. 왕구이슈의 ‘사회주의민주’ - 개혁주의와 사회주의삼권분립론
 - 3. 가오팡의 ‘사회주의민주’ - 제한적 다원주의와 사회주의다당제
- III. ‘사회주의민주’의 다양성과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

□ 중국 당국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나타내어 왔음

- 2010년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며 그에 대한 구금을 계속함은 물론이고 관련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2011년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이 중국에서도 기획되자 이를 강력하게 통제

-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중립적 가치로 수용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간혹 드러났는데 후진타오의 썽크탱크 역할을 해온 중앙당교의 위커핑(俞可平)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담론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증거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006년 말 미국 워싱턴에서 "민주주의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라고 발언하고 중국 당국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도 배척하지 않고 우수한 민주 전통은 계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외부에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과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착오

- 중국 당국이 지향하는(혹은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의 본질 혹은 이념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의 실현이기 때문

* ‘사회주의민주’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의 중국식 표현으로,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민주’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대 중국의 정치체제의 형성과 미래를 둘러싸고 매우 핵심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 중국의 현대사에서 ‘사회주의’도 ‘민주’도 항상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었지만 ‘사회주의+민주’가 쟁점이 될 때, 중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늘 폭발적.¹⁾

* 즉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민주’의 해석과 실천 구상을 둘러싸고 중국 공산당과 지식인 및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아가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이러한 갈등은 1956년 쌍백운동(百家爭鳴, 百花齊放) 과 1957년 반우파 투쟁, 1966년-1976년 문화대혁명, 1978-1980년의 ‘베이징의 봄’,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등의 대대적인 정치적 격변으로 나타남.

- 결국, 오늘날 ‘사회주의민주’에 관한 중국 내의 인식과 실천 구상에 대한 연구는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 따라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중국 당국이 정치개혁 목표로 규정한 ‘사회주의민주’에 대해 중국 사회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과 실천의 구상이 존재하는 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논의 속에 갈등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여부.

- 특히, ‘사회주의민주’를 지지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실제로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해석과 실천 구상을 둘러싸고 큰 편차가 존재하여 이들 간에 상호 대립적인 요소들마저 적지 않음을 규명해야

- 이는 우리에게 과연 중국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중국의 정치개혁의 방향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 또한 이는 향후에 발생 가능한 중국 내 정치적 갈등의 점화 위치와 정치적 격변으로의 확산 가능성 여부 등을 분석하는데도 유용.

□ 따라서 결론에서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좌파 내부의 인식 및 실천 구상의 다양성이 중국 당국의 입장과 어떻게 결합 혹은 충돌되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단히 전망.

I. ‘사회주의민주’ : ‘중국식 사회주의’의 공식 이데올로기

□ 1980년대에 중국의 사회과학 사전들이 정의한 공식적인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시각에 입각한 것

- 당시 중국에서 통용되는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자본주의를 극복하여 착취계급이 사라진 사회주의시기에 시행되는 민주주의로 그 주체는 무산계급화가 된 인민을 의미

“...사회주의민주제는 단지 착취계급이 소멸되어 기본적인 생산수단의 전민소유제 및 집체소유제 건립 이후에야 비로소 실현가능하다...”²⁾

1) 백승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성의 굴곡”,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년 제6권 3호, p124.

2) 中國社會科學院文獻情報中心, 『社會科學新辭典』(重慶: 重慶出版社 1988) p783.

“‘사회주의민주’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 시기의 과도적 역사적 단계에서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국가제도이다. 전체인민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하에서 평등하게 국가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략). 인민은 인신, 언론, 출판, 집회, 신앙 등의 자유권리를 향유하고 법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중략). 그것은 무산계급의 영도 하에 인민대중이 착취계급의 통치제도를 무너뜨려 쟁취해 낸 것이다.”³⁾

- 그러나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시기에 인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음

* 당시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덩샤오핑 등 당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과거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오랫동안 민주주의(民主)가 매우 부족했다고 규정하고, 민주주의가 사상 해방의 중요한 조건 인만큼 개혁개방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예컨대, 1980년 덩샤오핑은 ‘당과 국가의 영도제도 개혁(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을 주창하면서 과거 중국체제가 스스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그 원인으로 생산력 발전에 매진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민주정치의 부재를 거론.

- 개혁개방 시기에 중국 당국이 제창한 ‘사회주의민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회주의민주’가 중국 사회주의의 근본 목표로 규정되었다는 점

* 실제로 덩샤오핑은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란 상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현대화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

* 중국 개혁개방 정권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목표로 복원하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평가받아온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다시 현실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체제경쟁의 논리가 깔려있음.⁴⁾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민주(社會主義民主)’라는 개념은 줄곧 이러한 용도로 사용, 결국, 중국 당국은 일관되게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을 중국 정치체제 개혁의 이념적 목표로 규정

* 예컨대 1997년 15차 당대회 보고에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사회주의민주정치(社會主義民主政治)를 발전시키는 것이 줄곧 변하지 않은 우리 당의 분투 목표이다.”라고 선언.

* 후진타오(胡錦濤)가 새로운 지도부의 핵심으로 등장한 2002년 16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사회주의민주정치(社會主義民主政治)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강조.

- 흥미로운 점은 중국 당국 스스로 중국의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른 민주주의의 유익한 성과를 민주주의의 보편성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차용할 수 있다는

3) 辭典編輯組, 『簡明政治學辭典』(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5) p346.

4) 1980년 덩샤오핑은 “우리가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국가를 따라잡고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의 민주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를 창조하는 것이고 자본주의국가들보다 더 많고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요구를 이루는데 어떤 것은 시간이 빨라질 수 있고 어떤 것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대국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鄧小平, “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 『邓小平文选』2卷 (北京:人民出版社 1994) pp.322-323.

방법론적 유연성을 보여 온 점.

* 예컨대 1980년 덩샤오핑은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의 민주화, 경제 관리의 민주화, 전체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대화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실히 조사 연구하고 각국의 경험을 비교하고 지혜를 모아 실현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제시해야한다”고 주장.

* 중국 공산당의 현 지도부도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이며, 향후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도 무조건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수한 민주적 전통을 계승 수용하여 ‘중국식 민주주의’의 참신한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중국 당국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공산당의 영도체제 즉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은 다당제, 삼권분립, 양원제, 의회제 등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일관 되게 주장.

* “인정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인민대표대회제도 실시를 견지해야지 미국식의 삼권분립 제도 실시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 모두 삼권분립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⁵⁾

* “우리의 민주란 사회주의민주를 의미한다. 우리는 서양의 양원제나 다당제 또는 삼권분립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우리의 민주는 지도력이 있고 질서가 있다.”⁶⁾

* “우리의 정치체제 개혁의 목표는 절대로 서방의 다당제나 의회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적 민주정치를 건설하는 것이다.”⁷⁾

- 중국 당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당제나 의회제 및 양원제, 삼권분립 등을 수용 가능한 서구 민주주의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음.

* 대신 중국 당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제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 지역자치 제도, 도시와 농촌의 기층민주, 시민의 기본권 존중과 보호 및 보장, 중국 공산당의 집권 방식의 민주화, 정부 행정의 민주화, 사법체제의 민주화 등을 중국 당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민주’ 실현의 주요 제도로 제시.⁸⁾

- 즉,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이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민주화 즉 ‘공산당 일당제 하의 민주주의’를 의미.

* 물론 다당제를 정치적 다원주의의 구현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당 일당제 하의 민주주의’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중국의 사회주의민주 정치 건설이 줄곧 ‘마르크스주의 민주 이론과 중국 현실의 결합’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 따라서 다당제 등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보다 공산당의 일당제하의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5)邓小平, "在接见首都戒严部队军以上干部时的讲话"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 『邓小平文选』3卷(北京:人民出版社 1994), p307

6) "八位市长为改革鼓吹呐喊", 『人民日报』1987年6月22日字

7) 江泽民, "加快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步伐 夺取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更大胜利-江泽民在中国共产党第十四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1992年10月12日)", 『中国共产党新闻网』(<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7/index.html>)

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 『新华网』2005年10月19日. (<http://news.sina.com.cn/c/2005-10-19/11208053060.shtml>)

민주' 본질에 부합되고 중국의 상황에도 보다 잘 어울리며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⁹⁾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민주'를 정치개혁의 이념목표로 삼고 '중국식 민주주의(中国民主)'의 길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음.

* 이러한 인식은 사실 중국사회주의의 발전 단계를 '초급단계'로 보아 기본적으로 향후 100년간은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 현 지도부의 '사회주의초급단계(社会主义初级阶段)'론에서 비롯

* 즉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 입각하여 현 단계에서 중국이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민주' 수준은 '사회주의 초급민주(社会主义初级民主)'일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 이는 현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을 시사.

- 결국, 현 중국 당국의 '사회주의민주' 인식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수용하되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와 모순되는 서구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제도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

- 중국 공산당 당국은 정치적 안정 국면의 유지를 위해서도 공산당 일당 지배를 고수한다는 역사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고 '공산당 일당 지배 하의 민주주의'라는 논리적 모순의 답론이 중국적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폐기하고 다당제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받아들인 민주화를 추진한 바 있었지만 이는 결국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소련의 붕괴를 야기.

- 그러나 '일당제 하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역사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정치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당내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

*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민주'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사회주의초급민주'론은 과감한 정치개혁을 배제할 수밖에 없음.

II. 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1. 팡닝의 '사회주의민주' - 민족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체제 건설론

□ 팡닝(房宁)은 제3세계의 시각에서 중국과 세계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로 중국 내에서 소개됨

9) 덩샤오핑은 “우리는 인민과 청년들에게 민주 문제를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길, 무산계급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등이 모두 민주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 민주에 대한 선전이 부족했고 실행도 부족했다. 따라서 민주 발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향후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를 선전하는 때에 반드시 사회주의민주를 부르조아민주, 개인주의민주와 엄격히 구별해야 하고 인민에 대한 민주와 인민의 적에 대한 독재를 결합하고 민주와 집중, 민주와 법제, 민주와 기율, 민주와 당의 영도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邓小平, “坚持四项基本原则”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 『邓小平文选』2卷 (北京:人民出版社 1994), pp.175-176.

- 팡닝은 1957년생으로 현재 54세,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부소장, 연구생원 정치학과 학과장이자 교수. 1982년 베이징 사범학원 정치교육과 졸업.

- 독특한 제3세계 시각으로 당대 세계정치 시스템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하여 제3세계 국가 및 중국의 산업화와 현대화 발전의 특수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소개됨.

* 팡닝은 서구적 가치와 세계화를 비판해온 정치학자로서 중국 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저작 활동을 해 왔음. 관련 저작으로는 『全球化阴影下的中国之路』(1999), 『成长的中国当代中国青年的国家民族意识研究』(2002), 『民族主义思潮』(2004)

- 팡닝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관련 논문과 저서들을 양산(?)해 옴¹⁰⁾

* 본고에서 인용된 논문 외에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民主政治十论——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理论与实践的若干重大问题』(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草根经济与民主政治』(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8)

- 주변의 평가에 의하면, 팡닝은 독창적인 자기 견해가 없이 당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사실, 팡닝은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소장을 목표로 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음

□ 팡닝은 ‘종속이론’에서 도출된 제3세계 민족주의적 세계관을 흡수하여 10여 년 전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지식인으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

- 팡닝이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1987년 미국에서의 방문학자 경험 이후로 팡닝은 이후 세계화에 반대하는 제3세계 민족주의자를 자처

* 팡닝은 당시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이 미국이 세계의 자본, 기술, 정보 등을 독점하고 국제 분업 체제의 최상부를 차지하여 전 세계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세계화가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자본주의 발전이론에 대한 연구와 중국 사회주의를 위한 대응책 모색에 집중¹¹⁾

- 팡닝은 90년대 중반 『현대자본주의 발전 입문(现代资本主义发展引论)』이란 책을 저술하면서 서구자본주의의 민주제가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세습제와 같다고 비판

* 팡닝은 이 책에서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이 2차 대전 이후 전개된 제3세계 산업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자본의 국제화 운동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증식 운동으로서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

* 그는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중심부인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사회적 모순을 완화시켰고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시켰다고 지적

10) 팡닝의 논문들은 팡닝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敢于说不 - 房宁首页』(http://www.caogen.com/blog/all_infor.aspx?id=57)

11) “房宁”,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view/1397932.htm>).

* 팡닝은 특히 서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가 인민의 선택이란 형식을 사용하지만 실상은 정당의 조종, 정보통제,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 금권선거 등을 통해 자본주의 권력집단인 정치엘리트의 권력 세습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제라고 비판¹²⁾

- 이후 팡닝은 중국 민족주의 사상의 기수로 평가받는 왕샤오둥(王小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国可以说不)’을 출간했던 송창(宋强) 등과 함께 『세계화 그늘 아래에서의 중국의 길(全球化阴影下的中国之路)』을 펴내면서 보다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됨.¹³⁾

□ 팡닝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 체제를 건설하자는 입장이며 이러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체제는 서구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지양이라는 입장¹⁴⁾

- 팡닝은 중국의 정치건설의 핵심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정치 건설이라고 주장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정치란 당대 중국이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새로운 민주정치라고 주장

- 이러한 중국의 민주는 사회주의적이어야 하고, 중국 국가상황에 부합되어야 하고, 중국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부합되어야 하고, 중국의 사회발전이라는 진보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

- 중국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인류의 정치문명 성과(서구의 정치체제)를 시금석으로 삼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서구 자본주의민주에 대한 지양(扬弃)이라고 주장

- 결국, 팡닝은 중국의 민주정치 건설의 전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와 서방 자본주의 민주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라 주장

□ 따라서 팡닝은 ‘자본주의민주’의 결함을 버리고 ‘사회주의민주’ 우위를 높이자는 입장¹⁵⁾

- 팡닝은 ‘자본주의민주’가 금권정치, 집단정치, 정치부패의 폐해가 있다고 주장

* 개인의 자본이 공공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서구 자본주의민주의 고질병이어서 금권에 의한 선거 통제와 여론 조작 및 정책 제정에 대한 영향력 미침 등이 나타난다고 비판

12) 房宁, 『现代资本主义发展引论』(北京: 首都师范大学出版社, 1995).

13) 당시 나토군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폭탄 사건으로 중국 사회의 반미, 반서구적인 민족주의 감정이 극에 달한 시점에 세계화 시대의 중국 민족주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팡닝은 서방의 신식민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수단은 물론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통탄하면서 물질적인 빈곤보다 정신적인 빈곤 즉 민족주의의 부재가 더 두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서구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중국 인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선언한다. 房宁, 王小东, 宋强, 『全球化阴影下的中国之路』(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9). 이후 그는 제3세계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서구적 가치와 세계화를 비판해온 정치학자로서 중국 내에서 명성을 얻었고 중국의 민족주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저작 활동을 해왔다. 2000년대 이후 팡닝의 민족주의 관련 저서로는 房宁, 王炳权, 马利军, 『成长的中国当代中国青年的国家民族意识研究』(北京: 人民出版社, 2002), 房宁, 『民族主义思潮』(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등이 있다.

14) 房宁, “中国的民主政治是对西方民主的扬弃” 『光明日报』2010年 9月10日

15) 房宁, “资本主义民主的缺陷与社会主义民主的优势” 『光明日报』2011年09月21日

* 서구의 삼권분립은 사실상 권력체제 내의 상호견제로 이익집단 내의 경쟁과 게임으로 전락하여 소수집단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 이익 사이의 충돌이 나타나고 정책의 단기적 성과주의나 공리주의화가 나타난다고 비판

* 서방 학계와 매체들은 다당제와 의회제가 부패를 제약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서방 자본주의의 선거에서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부패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비판

- 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제도가 공동체 전체 이익 실현과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에 유리한 만큼 더 장점이 있다는 것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제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 지역자치제도, 기층 군중자치제도 등으로 구성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제도는 중국 인민의 공동체 전체 이익과 장기적 이익 그리고 근본 이익을 대표하는데 유리하고 개별 이익을 종합시키는데 유리하며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

□ 팡닝은 민주주의도 중국의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중국의 길로 가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일관¹⁶⁾

- 팡닝은 2005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민주정치건설 백서(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에서 제시된 것처럼 세계에 유일하고 보편적이면 절대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이야말로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주장¹⁷⁾

- 팡닝은 중국은 이러한 점에서 인민이 원하는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 속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평가

* 중국은 오랫동안 급속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화가 제국주의 전쟁 등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전쟁없이 평화로운 부상을 해 온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4가지 중요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평가: ①幹部四化(革命化、年轻化、知识化和专业化) 정책과 같은 간부인사제도의 개혁 ②정치와 생산의 분리(废止政社合一制) ③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하방 그리고 당정분리 및 정기분리 ④ 헌법개혁을 통해 문혁 시절의 무정부적 자유(四大自由: 大鸣、大放、大字报、大辩论)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법제를 회복한 것.

- 팡닝이 보기에 중국의 민주주의 길은 추상적인 시각보다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중국의 민주발전 역정은 ①민족자결 실현 단계, ②사회평등 실현 단계, ③광범위한 정치 참여 단계의 3개 단계로 거쳐왔다고 평가¹⁸⁾

16) 房宁, “民主还是中国的好” 『红旗文稿』2009年第2期, pp6-11.

17) 팡닝은 <중국의 민주정치건설 백서>의 핵심 초안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社科院专家：白皮书全面阐述我国民主政治建设” 『人民网』2005年10月19日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3783480.html>)

- ①민족자결 실현 단계: 신해혁명 이후 신중국 성립까지
- ②사회평등 실현 단계: 신중국 성립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 ③광범위한 정치 참여 단계: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 팡닝은 정치개혁을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간주하며 기능주의적으로 접근

* 팡닝은 70/80년대 정치개혁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당대의 정치 개혁도 중국 인민의 기본 권리 보장과 행복 추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팡닝은 헌팅턴의 ‘제도화 수준’의 개념에 동의하여 정치 제도화 수준은 사회적 현실과 사회발전 요구에 맞아야 하지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 중국적 현실에 맞는 정치개혁 수준을 주장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임.

* 현 단계의 중국정치체도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이라는 현실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 즉 중국 정치체도는 중국 인민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회 각 계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에 유익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

-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정치발전의 길을 가게되었는데 그 핵심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党的领导), 인민의 주체화(人民当家作主), 법에 의한 국가 통치(依法治国)의 3요소의 통일(三统一) 이라고 주장

* 서방의 삼권분립이 서방정치문명의 중요한 성과라면, 중국에는 3요소의 통일(三统一)이 중국 정치문명의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¹⁹⁾

□ 특히 주목되는 것은 팡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실현에서 중국적 상황에서는 선거민주주의가 맞지 않으며 대신 협상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주장²⁰⁾

- 팡닝은 민주정치가 한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상황(国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의 주류적인 의식이라고 평가

- 민주정치는 크게 선거민주주의와 협상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경쟁선거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는 인민의 자기 의사 표현과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인민의 감독(견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국론분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비해 협상민주주의는 참여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익 실현을 위한 협상을 벌여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모순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협상민주주의는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익한 만큼, 이러한 시기에 놓여있는 중국의 현 단계에서는 ‘협상민주주의’가 최적이라고 주장

18) 房宁, “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发展道路——中国社会主义政治改革若干思考” 『科学社会主义』2006年 第3期

19) 房宁, “中国民主政治建设和政治体制改革的八个观点” 『红旗文稿』2009年第21期, pp19-21.

20) 房宁, “竞争性民主形式会撕裂中国” 『红旗文稿』2010年 第5期, p39. ; 房宁, “政治协商是当代民主政治重要形式和主要特色” 『人民政协报』2009年10月21日

- 중국의 정세와 임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협상민주주의’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민주정치 건설을 시작했다고 주장

□ 팡닝은 중국 내 대표적인 좌파 정치학자 중의 한명이나 ‘마오주의자’로 볼 수도 없고 ‘신좌파’라도 볼 수 없는 ‘관방좌파’

- 팡닝은 마오쩌둥을 신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제도 건설의 공헌자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마오쩌둥의 민주사상은 법제 경시의 경향과 당의 영도 경시의 경향 등 두 가지 편향성의 결합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²¹⁾

* 팡닝은 마오쩌둥의 법제 경시의 경향에 대해 문화대혁명이 법제 파괴의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주장하면서 마오쩌둥이 1958년 8월의 베이다이하(北戴河) 회의에서 논의한 법가의 법치와 유가의 인치에 관한 논쟁에서 법치보다는 인치가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 팡닝은 마오쩌둥의 당의 영도에 대한 경시 경향도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당의 간부 부패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한 평가를 하고 대중들의 ‘대민주’에 대한 지나친 신앙이 있었다고 평가

- 따라서 팡닝은 중국의 정치개혁이 문화대혁명의 ‘대민주(大民主)’ 활동에 대한 교훈에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문화대혁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²²⁾

- 그는 건국 60년의 전반부는 중국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기초를 닦은 시기이자 모색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정치발전의 길을 형성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개혁개방 정권의 중국 사회주의정치체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 그의 주장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발견할 수 없으며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호의적 태도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세계적 의미의 신좌파 성향도 아님.

- 따라서 팡닝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관방 좌파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주의 네티즌들에게 어용학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²³⁾.

- 기이한 것은 신좌파와 마오주의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우여우즈샹(乌有之乡) 그룹에 팡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 좌파 네티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

* 다만, 팡닝의 문화대혁명 대민주 비판은 문화대혁명 대민주를 진정한 무산계급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우여우즈샹의 네티즌들에게도 재비판을 받고 있음.²⁴⁾

□ ‘선거민주주의’의 중국 실행을 부정하는 팡닝의 이러한 ‘협상민주주의’론은 중국 학계에

21) 房宁, “毛泽东民主思想的当代启示” 『马克思主义研究』 2010年第9期, pp5-10.

22) 房宁, “中国民主政治建设和政治体制改革的八个观点” 『红旗文稿』 2009年第21期, pp19-21.

23) 郑詹午, “驳房宁的反民主谬论” 『吴越的BLOG』 (http://blog.sina.com.cn/s/blog_475b03900102durm.html)

24) “房宁：毛泽东民主思想的当代启示” 『乌有之乡』 2011. 3. 3, 网友评论

(<http://www.wywx.com/Article/Class17/201103/218564.html>)

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

- 중국에서 중국선거법에 근거하여 현급 및 현급 이하의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 대한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농촌 기층의 촌민위원회 선거나 도시의 ‘사구자치’(社区自治)를 위한 사구주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리하여 중국의 선거민주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제도설계’와 동시에 ‘아래로부터 위로의’ 자발적 권리회복 운동이 서로 결합된 이중적 특징을 보여 온 것이 사실

- 따라서 팡닝이 ‘선거민주주의’의 중국 실행을 중국의 국론 분열 가능성을 근거로 부정하는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국의 제한적인 ‘선거제’ 자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따라서 팡닝의 ‘사회주의민주론’은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인민대표대회의 실질화와 인민대표 선거의 제도화를 주장해온 일반적 논의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입장

2. 왕구이쉬의 ‘사회주의민주’ -개혁주의와 사회주의삼권분립론

□ 왕구이쉬우(王贵秀)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社会主义民主)’론자이나 덩샤오핑의 어록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 특이

- 왕구이쉬우는 1935년 생으로 山西省 출신, 중국 인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중앙당교 교수로 있음. 당 기율검사위원회 특약연구원과 잡지 <中国政治体制改革>의 부편집장을 역임.

- 왕구이쉬우도 현재 77세의 고령이나 현재까지도 社会主义民主의 제도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정치체제 개혁 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당내 삼권분립의 제도화, 당대표대회 제도 개혁, 당무 공개, 정치개혁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등등

- 특이한 사실은 왕구이쉬우가 '社会主义民主'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개혁론을 주창하는 데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서 주로 덩샤오핑의 어록 즉 <邓小平文集>을 사용하고 있고 때때로 마오쩌둥이나 저우언라이의 어록이나 레닌의 어록 등도 사용하고 있음

- 왕구이쉬우는 특히 덩샤오핑이 선도적으로 ‘사회주의민주’의 제도화를 주창했다고 주장

* 덩샤오핑의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 없다’,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발언 등 덩샤오핑의 관련 어록들을 <등소평문선>에서 대거 발췌하여 제시

- 이는 왕구이쉬우가 덩샤오핑의 어록을 단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社会主义民主'의 조속한 실현 주장의 원조가 다름 아닌 덩샤오핑이나 마오쩌둥이었음을 알림으로써 이러한 논의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왕구이쉬우(王贵秀)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80년대 이

후 계속 주장해왔음.

- <中国政治体制改革之路>에서 사회주의에서 민주화의 실현은 무산계급 독재 혹은 인민민주독재 체제를 의미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건립’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은 지속적인 개혁과 자기 개선의 체제이므로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만큼이나 정치체제 개혁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가 부족하고 법제가 건전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극좌적 사상의 횡행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反黨反社會主義적 우파로 낙인찍힘으로써 ‘정치체제’ 문제의 제기가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고 비판

- 왕구이쉬우는 중국의 사회주의가 오랜 봉건적 전제주의에 대한 완전한 일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어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는 여전히 봉건적 정치문화가 남아있다고 간주하며 민주적 체제를 구축해야 봉건적 잔재와 문화가 완전히 일소될 수 있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를 위해서라도 정치체제 개혁은 늦춰서는 안되는 긴박한 과제라고 지적

* 왕구이쉬우는 1989년 천안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은 정치체제개혁 요구가 강조되었던 제13당대회 보고 문건(1987년)의 수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체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

* 왕구이쉬우는 2002년 논문에서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2002년 15차 당대회까지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늦춰져 왔다고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장쩌민 체제를 비판하고 후진타오에게 정치체제개혁에 관련된 기대를 보였음

* 2011년 왕구이쉬우는 한 인터뷰에서 원자바오의 정치개혁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정치개혁의 진보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최적의 기회를 실기했다고 지적하는 등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보임

□ 왕구이쉬우(王贵秀)가 주장하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의 실현 즉 이러한 ‘민주적’인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제도화와 공고화

- 왕구이쉬우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의 총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체적인 개혁이며 자체적인 발전

- 왕구이쉬우는 민주주의를 희생해서 효율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新권위주의론자들의 ‘先경제개혁 後정치개혁’ 주장에 반대하며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함께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주장

- 왕구이쉬우는 인민들의 민주적 의식의 부족으로 민주적 제도화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민주적 제도화를 통해 인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고 지적

- 왕구이쉬우는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는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왕구이쉬우의 ‘社会主义民主’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민주의 제도화

- <中国政治体制改革之路>에서 왕구이쉬우가 제시하는 社会主义民主의 제도화 조치로는 당내 민주주의의 규범화와 제도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확대, 행정법규의 제정을 통한 각 급 정부의 기능 발휘, 정치협상회의의 역할 활성화, 사회단체의 역할 활성화와 기층 민주주의의 확대 등이 포함됨

- 왕구이쉬우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党内 三权分立的 실현, 党 代表大会 常任制, 党委书记和 人大 常委会 주임의 겸직 반대 등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있음

□ 왕구이쉬우의 최근 주장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党内民主)의 제도화 부분

- 왕구이쉬우는 중국에서 당내 민주주의(党内民主)의 제도화가 인민 민주주의(人民民主)보다도 더 지체되었다고 지적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16차 당대회, 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지적하면서 2009년 17기 4중 전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집약한 ‘새로운 정세하의 당의 건설 강화와 개선에 관련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加强和改进新形势下党的建设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 제시되었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가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당원의 민주적 권리의 보장, 당내 三权分立的 실현, 당 대표대회 常任制的 완전한 실현 등

(1) 왕구이쉬우는 당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원의 민주적 권리 보장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그 제도적 기반은 당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완성함으로써 당원의 선거권이 확실이 체현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2) 왕구이쉬우는 또한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는 당 대표대회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당 대표대회가 당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최고 정책결정기관이자 (정부에 대한) 최고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직권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3) 왕구이쉬우는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가 실현되는 전제하에서 당의 영도기관의 권력구조와 운용 시스템을 조정하고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당 대표대회와 당 대표대회 상설기구를 최고의 정책결정 기관으로 만든 뒤, 당 대표대회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당의 위원회들을 집행기구로 만들 수 있고, 역시 당 대표대회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당 기율검사위원회를 당내 감독기구로 만들게 되면 당 내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의 3권이 제약과 균형

을 이루는 당내 3권분립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당의 영도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민대표대회의 부결권 인정, 법률에 의거한 당의 영도제 등 민감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음

- 왕구이쉬우는 당의 영도제의 성격은 정치적 영도이지, 다른 기관 특히 최고의 정권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조직적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따라서 당의 인대에 대한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그 주요 내용은 정치적 방향과 정치적 원칙 그리고 중요한 정책결정의 제시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간부 추천 등임 그러나 인민대표대회는 당이 제시한 정책결정의 건의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인식해야 함

- 왕구이쉬우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당은 중요한 정책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创议(制)权”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는 당의 발의 의안에 대해 ‘复决’ 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또한 당은 인민 속의 선진적 조직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당은 헌법이나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

- 왕구이쉬우는 당과 법의 관계에서 첫째, 당의 국가정권에 대한 영도는 법에 의해 규범화 되고 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법에 의해 당의 조직과 당원의 활동이 규범화 됨으로써 당과 당원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

□ '社会主义民主'의 조속한 제도화를 주창하는 왕구이쉬우의 정치체제개혁론은 중국 학계 특히 원로 그룹 가운데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민주화(‘민주적 사회주의’) 그룹이 적지 않음을 시사

- 왕구이쉬우의 주장은 중국 현대 정치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온 민주적 사회주의 제도화 주창의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음.

* 1957년 반우파투쟁 때 거세된 민주적 사회주의 그룹, 문화대혁명 말기에 민주적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주창했던 李一哲 그룹, 1976년 4.5운동과 1978-9년 민주적 벽 운동 당시 사회주의민주 주창 그룹, 1980년대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정치개혁 그룹, 그리고 최근 원자바오의 정치개혁 주장과 연결됨

- 왕구이쉬우는 원자바오를 고립시키고 있는 (상하이방-태자당 연합의) 권력 블록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듯함

* 왕구이쉬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원자바오의 정치개혁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왕구이쉬우는 여기서 중국의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최대 세력이 권력적

시장경제 하에서 기득권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권력적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목

- 왕구이쉬우의 정치개혁 주장은 17기4중 전회의 <결정>의 내용보다 더 진보적인 주장
- * 17기4중 전회의 <결정>의 내용은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당의 영도제도 견지와 개선, 당원의 주체적 지위와 민주적 권리 보장, 당 대표대회 제도와 당내 선거제도 개혁, 당의 집중 통일의 옹호’ 등을 적시하고 있음
- * 17기4중 전회의 <결정>의 내용은 당원의 민주적 권리 보장이나 당원 선거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일부 현급 정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당 대표대회 상설제도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제창할 뿐 ‘심화 확대’ 혹은 ‘전국적인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왕구이쉬우는 민주적 사회주의 그룹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에 해당
- * 1957년 민주적 사회주의 그룹에서부터 오늘날 가오팡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다당제’의 필요성까지 역설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왕구이쉬우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에 대해 전혀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덩샤오핑이나 마오쩌둥의 어록 등으로부터 ‘社会主义民主’ 실현 주장의 근거를 찾고 있음

- 따라서 왕구이쉬우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조속한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하되 공산당의 일당 지배의 정당성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다소 관변적인 학자로 볼 수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개혁 범위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만큼 매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3. 가오팡의 ‘사회주의민주’- 제한적 다원주의와 사회주의다당제

□ 2012년 현재 85세의 노학자인 가오팡(高放) 중국인민대학교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매우 저명한 정치학자로 사회주의자로서의 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지식인

- 1946년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특히 1947년 6월에는 중국 공산당 지하당이 조직한 민주청년동맹(民主青年同盟)에 가입하여 베이징대 지부 책임자를 맡음
- 1950년부터는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진 중국인민대학교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사와 마르크스주의 이론 등을 가르치고 관련 연구에 종사
- 1990년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으로 그는 중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부여하는 정부특수지원금(政府特殊津贴) 대상이 되었으며, 2009년에는 중국의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일급(一級) 교수의 칭호를 받아서 이공계의 원사(院士)급의 학술적 영향력을 갖추었다는 공인을 받았음.

□ 가오팡의 관점은 중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20여 년 동안 줄곧 ‘사회주의다당제’論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²⁵⁾

- 가오팡은 1987년 “사회주의국가의 정당 제도를 논하다-사회주의다당제에 관한 나의 의견(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我见)”이란 논문²⁶⁾을 처음 발표

* 당시는 덩샤오핑(邓小平)이 정치체제 개혁의 가속화를 주창하던 분위기였고 정치개혁 문제가 이미 1987년 10월의 중국 공산당 13차 당 대회의 핵심 이슈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오팡의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음.

- 이후 가오팡은 2000년에 '사회주의 다당제' 시리즈 2탄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 제도를 다시 논하다-사회주의 다당제에 관한 새로운 견해(再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新见)”란 논문²⁷⁾을 다시 발표하여 1987년의 입장을 크게 심화 발전

* 가오팡은 특히 이 글에서 사회주의 다당제 주장의 근거로서 그는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사회주의 다당제가 사회주의 발전의 온당한 경로였음을 논증

- 가오팡은 2010년에도 ‘사회주의 다당제’ 시리즈의 3탄 격인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 제도를 세 번째로 논하다- 사회주의 다당제에 관한 최근 견해(三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近见)”란 글을 발표하여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논의를 새롭게 확대.²⁸⁾

□ 가오팡은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채택했어야 한다는 취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 등 세 가지 측면을 제시

- 첫째,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인 **마르크스주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다당제 채택의 정당성이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에서 구상한 사회주의경제가 사회주의일당제를 필요로 한다는 필연성은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고 비판

- 가오팡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지양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계승하는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상품 시장경제 뿐 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민주공화제와 다당제라는 정치적 성과를 기본적으로 계승한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

25) 가오팡은 이후 1988년 半官의 정치개혁 쟁크탱크 기구인 ‘중국 정치체제 개혁 연구회(中国政治体制改革研究会)’의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결국 가오팡의 초기 사회주의다당제 주장은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다당합작제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6) “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我见”, 『政治学研究』1987年 4期. 高放, 『中国政治体制改革的心声』重庆: 重庆出版社, pp316-329 에 수록.

27) “再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新见”, 『浙江社会科学』2000年 1期. 高放, 『中国政治体制改革的心声』重庆: 重庆出版社, pp330-354에 수록.

28) “三论社会主义国家的政党制度-关于社会主义多党制之近见”, 『探索』 2010年 2期. pp46-52.

- * 다만 사회주의 다당제는 단순히 자본주의 다당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다당제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지양’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평가.
- *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구상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이때 (선진)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계급이 소멸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체제는 ‘일당제’나 ‘다당제’가 아니라 ‘국가와 정당의 소멸’을 상정
- * 그런데 실제 사회주의 혁명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개도국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채택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발전해 있는 사회주의초급단계를 경유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개도국의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는 이에 조응하는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일당제가 아니라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사회주의다당제여야 함.

- 자본주의 개도국이 일당제를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한 만큼 사회주의 개도국도 일당제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저자는 일당제는 자본주의 정당체제의 일반화된 체제가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체제이며, 일당제를 추진한 자본주의 국가도 결국은 다당제로 전환하였다고 반박.

- 가오팡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전인 <공산당 선언>에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두가지 종류의 사회주의다당제를 제시했다고 주장

- *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다당제(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의 다당제)와 두 번째 노동자 계급정당과 소부르조아계급 정당 및 부르조아 정당이 협력하는 다당제(사회주의 다당합작제)의 두 가지였다고 제시

- **둘째**, 가오팡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사**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다당제 채택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

- *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역시 사회주의 다당제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실천이 계속되어 왔으나, 소련이 득세한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이 사회주의 일당제를 정통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다당제 실현이 좌절되었다고 주장

- 사회주의 운동은 다당제(다 정파) 체제에서 시작

- * 1871년 파리코뮌체제 하의 프랑스 정부는 푸르동주의자, 블랑키주의자, 공산주의자, 소부르조아지 정치세력의 4개 파벌의 연합정부였으며, 1891년 엥겔스는 <1891년 사회민주당 강령초안 비판>이란 문건에서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집권하게 되면 다른 민주당파를 보존시키고 이들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제시

- 20세기 초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정파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일당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양당 혹은 다당제를 보이고 있었는데 1904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당의 통일”이 결의되어 각 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통합.

- * 그러나 20세기 초 가장 사회주의 세력이 컸던 독일에서 (통합되었던) 독일사회민주당이 제1차 대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3개 정당으로 분열되어 사회주의 정당의 다당제가 재현

- 소련사회주의의 등장으로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이 성립되었는데, 여기서 “1개 국가에 1

개의 통일된 공산당”이라는 규정이 통과되어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1개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강제적으로)통합

* 그러나 1950-60년대에 중소분열로 인해 각국 공산당 역시 분열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도 몇 개의 공산당이 공존

- 가오팡은 소련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사회주의일당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

* 소련의 사회주의일당제는 당내 의견이 분기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스탈린 체제의 일당제는 당내 반대파에 대하여 잔혹한 숙청을 가하여 개인숭배와 일인 독재로 귀결.

*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도 소련공산당은 사회주의 다당제 실행에 반대하고 심지어 당내 민주주의 등 중요한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결과, 1990년 대중의 다당제 실행 요구가 심화되자 오히려 전격적으로 자본주의적 다당제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 이는 공산당이 오랫동안 고착화된 수구적 ‘좌’편향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편향으로 급작스럽게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가오팡은 주장

* 소련을 제외하고 15개의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제도를 보면, 일당제 유지국(알바니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 다당(합작)제에서 일당제로 변모한 국가(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쿠바, 베트남 등 5개국), 다당(합작)제 국가(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동독, 북한,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 그러나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다당(합작)제가 제대로 실현된 나라는 없었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붕괴

- 셋째, 가오팡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도 사회주의다당제 채택이 정당하다고 주장

* 저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부였으며, 1989년 12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구축되어 왔으나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중국 공산당은 민주당파와의 협력 측면에서

① 국공합작부터 시작하여 민주당파와 협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②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중국의 민주당파의 수가 가장 많으며

③ 중국은 소련의 일당제 사회주의 모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특징과 장점을 보유

- 중국 공산당은 일찍부터 민주당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음.

* 마오쩌둥은 1956년 4월 특별히 강조하길, “우리와 소련이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민주당파를 존속시켜서 그들이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 대해서는 단결과 투쟁의 방침을 함께 채택함으로써, 민주당파는 공산당의 반대파인 동시에 반대파가 아니어서, 일상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고 하여 “장기공존, 상호감독”의 방침이 명확히 제시되었음

-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에 중앙인민정부가 다당합작의 연합정부였음을 선언한 이후 점차 ‘연합정부’ 논리가 당 문건에서 소멸되었으며, 민주당파의 중앙부처 부장 임명자도 15명(1949)→13명(1954)→10명(1959)→7명(1965)→0명(1975) 등으로 급격히 하락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민주당파에 대한 협력 노선이 다시 강조

* 1982년 중국 공산당의 민주당파에 대한 방침이 “장기공존, 상호감독(长期共存, 互相监督)” 외에도 “서로 진정으로 사귀고, 영욕을 함께 한다(肝胆相照, 荣辱与共)”는 방침이 추가, 1989년 12월 통과된 <中共中央关于坚持和完善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的意见>에서 “중국 공산당이 집정당이며 각 민주당파는 참정당”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

- 그러나 가오팡은 아직까지 민주당파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공산당과 민주당파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예컨대 중국의 민주당파는 지금까지 부부장 이상의 직무를 맡아본 적 없는 상태로 이제 참정당의 의미를 단순히 공산당의 보조적 역할 수행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연합 집권에 참여하는 당, 연합 정부에 참가하는 당”의 의미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제’론은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

- 자본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되어온 상황에서, 본래 舊자본주의의 비민주성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민주화가 제기되어왔고 결국은 사회주의 자체의 붕괴가 야기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

- 따라서 ‘사회주의다당제’론은 정통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직된 해석을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정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다당제’를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주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중립화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 가오팡은 ‘사회주의다당제’론을 통하여 ‘다당제’를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제도로 해석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국가에도 일당제와 다당제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했음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다당제와 자본주의다당제의 차이점을 밝힘.

- 가오팡은 ‘社会主义民主(이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 형태로서 ‘일당제’가 아니라 ‘파리코뮌’ 체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오팡의 견해는 脫레닌주의 혹은 脫스탈린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수용

*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통 원리로 간주되어 온 레닌의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민주독재’(혹은 ‘인민민주독재’) 개념은 사실상 ‘유산계급(혹은 인민의 적)’에 대한 폭력적 통치방식(독재)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민주적 통치방식은 경시함으로써 무산계급독재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산당의 독재 혹은 개인숭배형의 독재로 귀결되었음

* 따라서 가오팡은 ‘파리코뮌’이 노동자계급의 복수 정파 및 소자산계급 정파 등의 연합정치였음을 제시하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나타난 민주적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무산계급민주독재를 재해석(사실상 무산계급민주독재 개념의 폐기)

□ 다당제가 자본주의의 정치제도로 등식화되어 온 중국적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일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채택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오팡의 주장은 매우 과감한 논의

- 물론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제론은 아직까지 선거 경쟁을 허용하는 경쟁적 다당제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의 집권을 보장하되 다른 정당 세력과의 협의와 협력을 중시하는 다당합작제(多党合作制)를 의미

* 가오팡은 당시 자본주의 국가의 다당제도 사실상 일당 지배 하의 다당 협력 구도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제’ 역시 다당제로 불릴 수 있음을 지적

- 그러나 이는 보수파가 개혁파의 정치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덩샤오핑도 다당제 수용 불가를 공언했던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하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다당제가 자본주의의 다당제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정받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가오팡이 사회주의 다당합작제를 사회주의 다당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제’론은 1957년 중국 사회주의의 민주화 경로를 주창했던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현 주장과 맥이 닿아 있음

- 1957년 5월 공산당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쌍백운동 본격화되면서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이 급속하게 확산

* 非공산당 세력인 민주당과 인사들이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 그들은 공산당의 일원적 구조와 당 기구와 국가 기구의 혼용을 비난하고 당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파’가 공산당 일당 지배 하에서 ‘허울 좋은 장식’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제’론은 시에타오(谢韬)의 사민주의(민주사회주의) 모델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나, 역사적으로는 사민주의 모델로 수렴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시에타오(谢韬)가 주창한 민주사회주의 모델은 스웨덴 모델과 같은 제3의 모델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의 모델로 주창하는데 이는 북유럽의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정당이 포함된 (자유주의적)다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

- 그러나 가오팡(高放)의 사회주의다당제론은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에 서도 다당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실질화시켜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전통적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민주적인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전환하자는 견해.

* 가오팡은 단기적으로 당의 영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민대표대회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기구로 실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사회주의민주’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 따라서 가오팡은 실질적인 다당합작제를 통해 연합정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회주의 정당이 경쟁하는 사회주의다당제를 실현하여 인민대표대회를 실질화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가오팡은 또한 사회주의 내부의 민주화 과정에서 공산당 일당의 권력 독점을 반대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다당(합작)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실체로서의 대의제가 실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현실적으로 사민주의 모델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음

III. ‘사회주의민주’의 다양성과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

□ 본고는 현 중국 당국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경제체제 이념에 조응하는 정치체제 이념으로 대두되어 왔음을 밝힘으로써 이 개념이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설명

- 본고는 우선, 중국 공산당 당국이 현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정치개혁 목표로 ‘사회주의민주’를 설정하였음을 논증하고 이 개념이 중국 당국에 의해 어떻게 묘사되는 지 분석.

□ 중국 당국이 보이고 있는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순적 태도는 중국 내 회자되는 ‘사회주의민주’개념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

- ‘사회주의민주’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수렴에는 절대적으로 반대, 다만 이는 ‘민주주의(democracy)’가 탈각된 과거 시기 사회주의 체제의 독재적 통치방식을 반성하고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목표로서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민주주의 모델의 장점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

- 이는 오늘날 중국의 ‘사회주의민주’ 개념 속에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수용된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인식’이 이중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

□ 본고는 중국 당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사회주의민주’ 개념에 대한 중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이 존재함을 규명

	인식의 기본 이념	정치안정 or 정치개혁	정치개혁 구상 강조점
중국당국	등소평주의	정치안정 우선	법제화 우선 (당 제도 개혁)
팡닝	민족주의(종속이론)+ 등소평주의	정치안정 우선	중국식 협상민주주의 (공산당 주도의 간담회)
왕구이쉬우	마르크스주의+ 등소평주의	정치개혁 우선	사회주의삼권분립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가오팡	마르크스주의+ 다원주의	정치개혁 우선	사회주의다당(합작)제 (연합정권의 실질화)

□ ‘사회주의민주’ 개념에 대한 중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주의민주’의 실현 방향 즉 현실가능한 정치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좌파와 자유주의자 사이에서만 아니라 좌파 내부에서도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

- 중국 당국이 자신의 정치체제 이념으로 규정한 ‘사회주의민주’가 현 시기서도 매우 논쟁적인 개념

* 중국 사회주의의 이념적 근간을 등소평주의에 두는 중국 당국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계보의 다양한 내용을 흡수 수용하며 ‘사회주의’와 ‘민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나타나 는 것

□ 결국 ‘사회주의민주’의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은 중국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가 능한 정치개혁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것

-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당국은 정치개혁을 공언해 놓은 상태, 따라서 향후 중국 당국이 추진할 정치개혁의 수준은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 내에서 선택될 것

-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당내 권력 엘리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팡닝의 구상과 같은 협상민주제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치개혁

-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훼손하지 않지만 당내 권력 엘리트 내부의 권력분점과 상호견제를 통해 당내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구이슈의 사회주의삼권분립 체제를 구축할 것

- 중국 공산당이 다원화된 정치현실을 인정하여 일당 지배체제를 포기하고 다른 정파와의 신민주주의적 연합정권의 성격을 복원 구현하려면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합작)제를 실질화 하려고 할 것임

□ 다만,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그동안 수용불가를 주장해온 삼권분립과 다당제론을 사회주의 체제 속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

- 덩샤오핑은 삼권분립과 다당제 등을 자본주의 정치제도의 것으로 규정, 수용 불가를 주창 해왔고 이는 하나의 유훈이 되어 현 지도부까지 계속되어 왔음.

- 따라서 삼권분립과 다당제론을 사회주의 체제 속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덩샤오핑의 유훈을 극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삼권분립론과 사회주의다당제론을 수용한다면 덩샤오핑의 유훈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수정이 불가피함

* 덩샤오핑의 유훈을 재해석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대사인만큼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상황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해야 할 것